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원 **SHIN & KIM** **SHIN**
 법무법인(유) 원 법무법인 세종
KCL **YULCHON** **律村** 법무법인(유) 율촌
I&S **법무법인 케이씨엘** **DARAE** **SUH & Co** **apex**
 INTEGRATION & SOLUTION KIM, CHOI & LIM LAW & PATENT FIRM www.SuhCo.com 법무법인(유) 에프엑스
Lee & KO **LOGOS** **SEOLAW** **BARUN LAW** **바른**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 서로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3
LAW FIRMS
in KOREA

NR **한누리** **Lee International**
 법무법인 Hannuri Law IP & LAW GROUP

bkl **Nexus**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법무법인 넥서스

지평지성 **世軒** **良軒**
 JIPYONG JISUNG 법무법인(유) 세헌 KIM CHANG L

KIM & CHANG

한얼 **세창** **SOMYOUNG** **남산** **화우**
 HANOL LAW OFFICES SECHANG & Co. Attorneys at Law 법무법인 소명 LIM, CHUNG & SUH 법무법인(유) 화우
 YOUNG & YANG LLC

지은 **JP** **HYUN** **HWANG MOK PARK**
 법무법인 지은 법무법인 JP 법무법인 흥

11

 9 771976 488000
 ISSN 1976-488X 정가 9,000원
 (주)리걸타임즈

창간 6주년 특집 한국 로펌업계 긴급진단
 ‘법률서비스 만족도’ 사내변호사 설문조사
 로펌 선택의 3요소는 전문성 서비스 비용

창간 6주년 기념호

차세대 대표주자 지평지성

동남아에선 외국기업도 지평지성에 자문 구해

M&A, 금융, 부동산, 송무 등 유명



양영태 대표변호사

국내 로펌업계에 뉴스를 몰고 다니는 로펌 중 한 곳이다. 최근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호에 이어 상고심 변호인으로도 선임되어 또 한 번 뉴스를 탔다.

국내외 변호사만 약 130명. 국내 8-9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로펌 지평지성은 특히 한국 로펌 성장사에서 여러 차례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13년 전 벤처 로펌으로 출발

무엇보다도 벤처 붐이 한창 일던 2000년 4월 일종의 벤처 로펌으로 출발했으나, 얼마 안 지나 업무영역을 확장하며 '톱 10'에 진입한 고속성장의 주인공이 지평지성이다. 출범할 때의 이름은 법무법인 지평. 지평은 당시 법무법인 세종에서 경력을 쌓은 젊은 변호사 10여명이 주축을 이뤄 이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발전의 계기는 8년 후에 찾아왔다. 2008년 5월 법무법인 지성과 합병을 일궈낸 것. 그때 지평과 지성은 각각 소속변호사가 60여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중형 로펌으로, 지평-지성 합병은 중형 로펌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규모 확대와 함께 시너지 제고를 겨냥한 새로운 유형의 합병이란 의미가 컸다.

합병을 통해 대형 로펌의 위상을 갖춘 지평지성은 2-3년 전부터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M&A와 금융, 부동산과 건설, 송무,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양곤 등 6개 사무소 운영

특히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은 한국은 물론 외국 기업, 외국 로펌들도 투자 등과 관련해 지평지성에 자문을 의뢰할 만큼 지평지성이 뛰어난 전문성을 자랑한다. 양곤 등 동남아에만 6곳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지평지성엔 투자는 물론 투자에 앞선 시장조사, M&A 중개 요청 등 다양한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성과를 통해 지평지성에 붙여진 또 하나의 수식어는 '해외업무 전문로펌'. 지평지성은 서울 본사에도 러시아팀, 중남미팀, 일본팀 등을 잇따라 개설, 한국 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지평지성
JIPYONG JISUNG